

- 본문 : 에베소서 5장 18~21절

설교자 : 조경래 담임목사

- 제목 :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거룩한 삶”

· 본문 읽기

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 마음의 문을 열며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개론’에서 중요한 부분이 ‘성령님’과 연관된 것이다. 성경은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하는 것을 나란히 비교하고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술 취하는 것과 흡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은 오해이다. 알코올 성분에 잠깐 흥분해서 놀아나는 사람을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행동하는 사람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이유는 초대교회 당시 세상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술 파티를 벌였다고 한다. 그리고 술에 취하면 나오는 대로 더러운 말을 쏟아내었고 부끄러운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성도의 모임은 어떠해야 하는가? 두 말할 것 없이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은혜로운 손길을 통해 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함께 나누는 모임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권면하는 것이다. 당신은 성령 충만한 자인가?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하신 말씀 안에서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과 함께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은 무엇인가? (18절)
2.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명령이 <현재명령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18절)
3.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명령이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18절)
4.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명령과 대조를 이루는 것은 무엇인가? (18절)
5. 성령이 충만한 자와 그와 같은 자들의 모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네 가지 특징이 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 각각의 의미를 말해보라. (19~21절)
6. 성경이 말씀하는 네 가지 성령 충만한 모습 가운데 당신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에 당신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 없다면 성령 충만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는가?
7. 더 나아가 우리 모임이 더욱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면 무엇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삶의 열매를 거두며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라면 그 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영이신 성령의 다스림과 통제 안에서 민감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거룩한 삶”은 서로 화답하는 삶, 주께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리고 서로 예의바른 존경으로 복종하는 삶이라고 했다. 믿음 안에서 성도들과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살아주지 않겠니?’ 그런 감동을 주시면서 만지고자 하는 내 삶은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당신이 지금 성령님께 기회를 드려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기회로 내어 드릴 것인가?” 결단하고 그 기회를 성령님께 드리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하자!

· 말씀기도제목

1.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예의바른 존경”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2.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마다 마음과 언어와 행실을 성령님께 다스릴 기회로 드림으로 성령의 통제와 지배를 받는 거룩한 삶 살게 하옵소서.
3. 송원교회가 “영가족이 하나되는 소그룹”으로 구역이 모임 때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만을 높여 드리게 하옵소서.